불교는 … 불교신문
불자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구독신청 (02)730-4488

佛教新聞

bulgyo.com

불기 2557년 3월 9일 (조계종 / 단기 4346년 음력 1월28일)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 홍사성

대표전화 (02)730-4488 제2894호 토

전통 한방향의 본가
한방향기 www.cwh.co.kr 한방향기
☎ 054) 933-6371~2

10·27특별법 '중오방지법'

전반기 국회통과 '맑음'

총무원장 자승스님-강창희 국회의장 환담 이어 정각회 조찬법회서 새누리-민주 양당 '공감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과 '종교방지법' 이 빠르면 전반기에 국회를 통과될 전망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5일 10·27법난특별법 개정과 종교방지법 제정에 협조해달라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데다가 10·27법난특별법 소속 상임위원인 국방위원회의 유승민 위원장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일 국회 정각회 조찬법회 후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환담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10·27법난특별법 개정과 종교방지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했었다" 면서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앞 챙겨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해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들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종오방지법' 제정안은 종교와 인종, 국적 등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며, 10·27법난특별법은 오는 6월30일로 끝나는 법난심의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골조로 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에 앞서 여야 불자 국회의원 28명이 환담한 조찬법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소속 강창길 국회 정각회 부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염원인 10·27법난특별법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중" 이라고 설명한 뒤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전반기에 계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협장안심사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28명의 불자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조찬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감동을 새소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불자 국회의원부터 한마음으로 앞장서야 한다" 면서 "봄이우동(봄에 우리)의 자세로서 감동을 새소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의정에 앞장서달라" 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eg@bulgyo.com

지난 5일 용산참사로 구속된건 철거민과 그 가족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이들은 용으로 양으로 애써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가족들도 고생이 많았다" 고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sz52nd@bulgyo.com

2013 만해대상 종교 국적 인권 역대 최대 규모

일면스님 등 9명 선정

2013 만해대상 심사부문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과 모로코자기개발의 회장 엔미라 엘 알라, 미얀마 사인 다크 파이가 명예회장에 선임된 로한 만해대상 스리랑카부문에 세계불교도우의회, 김상수 대한성공회 주교, 페룸리 글렌 교육은동가 스탠에부 문국 국무장관 안옥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독일 소설가 장고 슐제, 러시아 시인이자 철학자인 콘스탄틴 케드로보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3면

만해사상실천선양위원회는 이날 스님는는 자보 1일 2013 전기이라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4월 오후 각 부분 수상자를 이 같이 발표했다. 광복, 심전, 문예 등 각 부문에 3명씩 공동수상자가 선정돼 예년 최대인 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종사성 만해총한 기획홍보위원장은 "이번 만해대상에는 각 부문에 수많을 가려기 힘든 많은 후보가 추천됐다" 면서 "이는 만해대의 불교, 개불력, 이해공감 등 수상자의 정교 와 국제도 다양한 것이 큰 특징" 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6월12일 오후시 인권 해놀리센터에서 열린다. 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씩 상금이 전달된다.

허정철 기자 hc@bulgyo.com

"끝까지 힘이 돼 주어서 감사합니다"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가족들, 총무원 예방

용산참사로 구속됐던 철거민과 그 가족들이 학생시민들 위해 힘써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총무원을 방문했다. 이충연 용산대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김정수, 김성환, 김주광, 하주석 씨와 그 가족들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여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장스님을 만나 감사인사를 했다. 구속 철거민들은 지난 1월31일 학생시민 변호사.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 가지로 고생 많았다" 며 "힘이 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마치지 못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용산 뿐 아니라 현재와 한해 동에도 다른 큰 관심을 갖겠다" 며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인연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원장스님은 이날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염주와 〈산사는 깊다〉 책을 선물했다.

이어 철거민들과 가족들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준데 대해 고맙다고 인사했다. 용산참사 당시 놓침을 받아다 수경법인 철거민 김재호씨는 말씀 이후 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앞은 책 〈꽃피는 용산〉을 선물했다.

이충연 씨는 "끝까지 보살펴 주신 덕분에 사면될 수 있었다" 며 "진심구제의 해임자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00년 11월 취임 직후 첫 방문지로 용산참사 현장을 찾는 등 취임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정기노동조합 법이전 세입자대책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져 경찰인 1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홍다영 기자 hong1004@bulgyo.com

■ 종회련산 긴급청검 ① 법인법

"선학원 분원장 권한 보호법"

총무부장 지현스님, 법 제정 취지 밝혀

오는 19일 개원하는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법인법과 총림법, 음악(수계)관련 학불조치법 등 제·개정이 예고된 법안과 관련, 제정안 6미다 9명 명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법은 조계종 스님이 심림하거나 종단 소속 사찰 재산이 출연대 심림된 법인에 종단 정체성 과 종립성을 심어주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제안됐다. 종단 조사에 따르면, 종단 사찰이나 스님이 심림한 법인수를 보면 제안법안이 예정, 시간법인은 111개에 달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법인은 남 이 감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종단에는 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모법이 없었다.

스님들이 좋은 취지에서 법인을 만들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종단에 등록되지 않다보니 공짜 이나 사사사업체를 종단에 대한 기여는 없고, 스님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원에서만 마무르게 되었기다. 그 과정에서 심부 법인은 사유화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 종단에 신고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찰소유재산을 매각해 법인을 만들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단에 법인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총무원이 법제정 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법인법은 중앙종무기관, 사찰 및 스님이 심림한 법인 중 신태에 사찰을 보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 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 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법인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 ○○법인 등의 명칭으로 해야 하며, 법인 심림시 사찰의 재산을 출연할 경우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계종유지재단, 대각회나 선학원 등은 이사 전원이 조계종 스님으로 선학원, 대각회의 이사 3분의1은 종단이 추천하도록 했다.

평등이 되는 부분은 선학원 대각회 이사 가운데 3분의1을 종단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이사 정족수 3분의1을 종단이 추천한다고 해도 법인 이사회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종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며 "특별법인 성사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야 위한 의도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종단의 이사추천이 이뤄지는

"

제단 95 사단 111개 현실

체계적 관리할 '모법' 절실

미등록사찰 선학원 분원

법인법 제정되면 제한 풀려

선거권 · 피선거권 등 회복

특정법인 권한침해 오해

특위 구성 의견조율 할 것

"

학교법인 동국대를 예로 들며 "종단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해탈 법인과 종단이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보여주는 유일의 상징" 이자 "이사의 운영에 대한 부담감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임부에서는 종단에서 법인등록을 명분으로, 사찰을 빼어가려는 것 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인법 제정에 따라 선학원이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한다면, 분원들은 미등록사사업이에서 해제돼 오랜의 사찰법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선학원 분원(선학원 소속 사찰) 주지 스님들은 그동안 제한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현재 선학원 분원은 종단 사찰법에 따라 미등록사사찰이으로 돼 있다. 현행 사찰법에 따른 선학원 분원장은 미등록사사찰이 주지이기 때문에 과급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종무원법 상의 임해의 종무자에 취임할 수 없다. 해당 스님과 도제는 교육기관 선학원 입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지만, 2002년 조계종과 선학원 간 합의에 따라 도제교육과 수계만 허용돼 있다.

지현스님은 "법인법 제정에 따라 선학원이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한다면, 분원들도 미등록사사찰에서 해제되고 사찰법에 준해 정건주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사찰법에 근거해 정건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도제 나 사찰사제에게 정건주 권한을 승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등록사사사찰에서 해제되면 해탈 분원장 스님은 그 간 제한을 받아왔던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특히등 사사사무이라 분원에서 일맞던 소임과의을 인정받지 못해 요금 기그사를 지를 수 없었던 것도 해소된다.

지현스님은 "특정법인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보기보다 법인등록을 통해 선학원 분원장 스님이 종도도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은 법인법을 통해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을 종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라며 "2002년 합의 이후 정체해 있던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인법은 국회 본 입법에 고 뒤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이월됐다. 총무부장 스님은 법인법 제정을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렵다고 보다. 스님은 "법인법이 제정되더라도 관계자들과 협의해야 사안들이 많다" 며 "종회, 총무원, 선학원 대표자들도 특위를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현경 기자 ehcat0o@bulgyo.com

황금연등 전문제작 보급업체

황금연등

골드(금)가 좋은 집

황금색이 변하지 않고 쉽게 만들어 지지 않기에 더욱 고귀하고 품격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연등이 아닙니다.
골드(금)보다 더 황금 같습니다.
연등의 최고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등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자체 황금빛이 나는 황금등입니다.
법당에는 꼭 황금등을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문 생산합니다. 주문 결재 후 7일내 발송

황금등 사업부 010-9240-4848
농협 : 751081-51-088024(권태희)